

※ 본 자료는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의 공동 보도자료입니다.

에어리퀴드코리아 · 롯데케미칼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 대산, 울산에 대규모 수소 출하센터 투자...양사의 강점 활용해 상호 보완적 시너지 창출
- 에어리퀴드코리아 기욤 코테 대표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본 신규 합작사를 통해, 향후 한국 수소 청정 모빌리티 시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수소 공급망을 구축 할 것”
-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그간 쌓아온 생산 노하우와 세계 **22개국 26개** 생산기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에어리퀴드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탬 것”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이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한다. 지난해 5월 수소사업협력 MOU 체결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다.

양사는 29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에어리퀴드코리아 기욤 코테 대표,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은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4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명은 미정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및 승인을 거쳐 올해 7월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합작사는 롯데케미칼의 부생수소를 활용해 대산과 울산 2곳의 대규모 수소 출하센터에 투자해 수도권과 영남권의 수소 출하를 담당한다. 이를 시작으로 롯데 계열사 등 전국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소 모빌리티 시장을 개발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합작을 통해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은 양사의 강점을 활용해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한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전세계수소 에너지 시장에서의 광범위한 경험과 더불어 수소 출하센터 및 유통에 대한 전문 기술을 운송시장을 위한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산과 울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제공하고, 전략적으로 출하센터를 유치해 수소 상용차를 위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양사의 금번 합작 투자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전국 에너지 및 모빌리티 시장을 위한 수소 가용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리퀴드코리아 기용 코테 대표는 “금번 합작사 설립으로,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은 한국의 수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었다.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본 신규 합작사를 시작으로, 향후 한국 수소 청정 모빌리티 시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롯데케미칼은 그간 쌓아온 생산 노하우와 세계 22개국 26개 생산기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에어리퀴드와 함께 수소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에어리퀴드의 약속

에어리퀴드의 약속은 2015년 파리 협약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소 분야의 선구자로서, 그룹은 수소가 에너지 전환의 초석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룹은 생산 및 저장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 전반을 제어하기 위한 에어리퀴드만의 고유한 전문성을 개발해 왔으며, 산업적 용도, 청정 모빌리티와 같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청정 에너지 운반체로서 수소를 널리 사용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2035년까지 저탄소 수소 전체 밸류체인 및 2030년까지 총 3GW의 전기분해 용량에 약 8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어리퀴드

에어리퀴드는 1996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4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부문(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산업용 가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 헬스케어 사업등을 통해서도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HyNet) 및 수소 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2021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에 참여한 것에서 보여주듯이 한국 수소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 핵심 기여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에어리퀴드코리아 커뮤니케이션팀
박연희 수석 02-3019-2527

산업용 및 의료용 가스, 기술, 서비스 분야의 세계 선도기업인 에어리퀴드는 75개국에서 약 66,400명의 직원들이 380만 명 이상의 고객과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소, 질소, 수소는 생명, 물질과 에너지에 필수적인 작은 분자들입니다. 이것들은 에어리퀴드의 과학적 영역을 상징하며 1902년 회사 창립 이래로 에어리퀴드 활동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에어리퀴드는 업계를 선도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열망합니다. 회사의 고객중심 변혁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 있고 정기적이며 책임있는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바탕에는 탁월한 경영, 선별적 투자, 개방형 혁신과 전 세계 그룹사가 실천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자리합니다. 임직원의 헌신과 창의력을 통해 에어리퀴드는 에너지 및 환경 변환을 활용하고, 헬스케어와 디지털화의 변화를 이끌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에어리퀴드는 2021년 230억 유로가 넘는 매출을 거뒀으며, 매출의 40% 이상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유로넥스트 파리 증권거래소 (compartment A)에 상장되어 있으며 CAC 40, CAC 40 ESG, EURO STOXX 50 및 FTSE4Good 지수에 속해있습니다.